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연중화... 체감 가능한 청년일자리에 집중
- 서울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

ZOOM IN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3년간 100억 원 지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나성조 sjna@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일자리대장정' 연중화... 체감 가능한 청년일자리에 집중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대장정'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기업-대학-노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현장과 정책이 결합된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일자리대장정'이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자리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책 중심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매월 마지막 주를 일자리대장정 주간으로 선정하고, 연중 캠페인성으로 추진해 전 사회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매주 1회 이상, 연간 100회 이상 기업 CEO와 대학총장을 만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 경제계, 노동계, 지역사회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연중 운영한다. '일자리대장정'은 상반기 3~6월, 하반기 9~11월에 진행된다. 3월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4월 경제민주화·노동존중 ▲5월 청년일자리 ▲6월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9월 사회적경제일자리 ▲10월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11월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가장 긴급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① 서울전역에 취업준비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 300개를 열고, ② 강소기업 1천개 발굴 및 복지·공공서비스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며, ③ 알바청년권리 보호센터 확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기관 시범운영 등 실제 추진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여성, 베이비부머, 어르신 등 계층별 시민을 위한 일자리정책도 빠른 시간에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업, 경제민주화 등의 주제로 청년, 분야별 전문가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안대회를 정례 운영하고,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관련 제안을 수렴해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마련

서울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44개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시급한 분야부터 관련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9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열린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와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건의된 지원 사항을 토대로 ▲긴급자금 지원 ▲대체부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 ▲제품판매 지원 ▲세계 지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1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용 100% 및 8억 원 특례보증과 기존 대출 건(4개 기업)에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도 유예토록 했다.

생산 대체부지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여 대체부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SBA(서울산업진흥원)가 운영하고 있는 DMC 첨단산업센터(940㎡), 성수 IT센터(500㎡)의 일부 공간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1~2년간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300㎡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수산업단지 가용부지(4,950㎡)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합한 부지를 알선키로 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이 생산을 위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제공하고,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고용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3월 중으로 '개성공단 도움 바자회'를 시청광장과 시청본관(다누리매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시 입주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구·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4개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입주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기업까지 포함한 개성공단 관련기업에 세계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ZOOM IN | 01

서울시, 일자리 창출 외투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외투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개 외투기업의 신규 고용 1,633명에 38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했으며, 2015년에는 총 88명을 신규로 고용한 외투기업 4개사가 총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8대 신성장동력 분야 외투기업 중 2015년 신규 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 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 ▲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 원

신규 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3년간 100억 원 지원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회인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대책은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의 영세성, 과다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폐업과 노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3월 2일(수)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월 1만 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부금액을 5만 원씩 청약하면 서울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씩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난 2007년 9월에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상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부금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업,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매년 평균 3만 5천 명씩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현재 26.6%(15년 말 기준)인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가입률 34%를 목표로 19억 9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약 3만 3천 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인터넷), 시중금융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 사업장의 서울 소재 사실 확인과 연매출 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제출

- 방문 가입 가능 시중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지점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